

미국 찾아간 순천시장 일행, LA서 문화콘텐츠 동력 확인

애니메이션 성지 LA견학, K-디즈니 성장가능성·기대감↑ 노관규 “글로벌대학30과 연계한 ‘창조 애니메이터’ 키울 것”

미국을 방문 중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미국 디즈니랜드와 다른 순천형 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구상했다.

최근 순천시에 따르면 미국 해외 연수단 일행이 미국 내 주요 관광지를 돌며 정월박람회 이후 도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시장 일행은 17일, 18일(현지시간) 이틀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견학을 마쳤다.

UCLA 대학(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방문해 교육 시스템부터 콘텐츠 제작과 유통, 놀이와 휴양까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확장한 사례를 살폈다.

‘UCLA’는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문화예술 고등 교육기관으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였다.

UCLA 대학 관계자는 연수단에 우리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감수성과 인문적 철학을 익히는 기초과정을 거친 뒤 기술 영역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창작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모든 과정을 거친 졸업생들이 픽사, 워너브라더스 등 애니메이션 산업에 바로 뛰어들고 있다는 직업 연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노관규 시장은 “AI 등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창작과 창의 영역은 결국 사람의 영역이다.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이 가진 생각의 힘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순천대가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만큼 UCLA와 지역대학교가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 우리 순천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시장 일행은 월트 디즈니가 직접 디자인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와 세계 최대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디즈니랜드는 1955년에 개장한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로 단순한 놀이기구 중심의 테마파크를 넘어 캐릭터가 휴양, 놀이, 문화와 결합된 융복합 산업의 집약체로 연간 방문자는 1800만 명으로 집계된다. 순수익은 2조 원에 달해 애니메이션 경제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역시 ‘해리포터’, ‘스타워즈’, ‘조스’ 등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기 영화를 제작·배급한 곳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화 촬영 스튜디오와 테마파크 놀이기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노 시장은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공통점은 문화 콘텐츠를 거대한 산업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이다”며 “잘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를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까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 그곳에 종사하는 일자리만도 수만 명에 이른다”고 미래 먹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한 노관규 순천시장 및 미국 해외 연수단. 순천시 제공

거리로 떠오른 문화콘텐츠 산업을 강조했다.

이어 “순천시는 천만 명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아날로그 무대가 있다. 그 위에 탄탄한 애니메이션 선도 기업을 유치해 픽사 같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생각이다”고

말했다.

미국 연수단 일행은 마지막 일정으로 물의 도시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를 방문해 동천과 옥천 등 순천의 수자원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봉래면 일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 총사업비 95억 원 투입해 가뭄시 활용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가뭄, 수질 문제 등 수도사고 발생에 대비해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봉래면 신금제와 교동제 물을 예내제로 송수하기 위해 송수관로 설치, 가압장 설치 등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예내제는 봉래면, 동일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원지로 지난 2022년 가뭄 시 저수율 30%대로 떨어져 제한 급수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겪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 시 예내제 저수율이 떨어지더라도 신금제 물을 활용하여 제한 급수 없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예내제 수질오염이 발생할 경우 신금제 원수를 대체 공급할 수도 있어 여러 방면으로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24년도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설계역역을 발주하고 연내 공사를 착공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꼬막음식점 대상 ‘찾아가는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 추진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 꼬막음식점 특별 위생·친절교육

보성군은 22일부터 27일까지 꼬막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3월까지 꼬막 제철을 맞아 꼬막음식점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

해 위생·친절 교육을 추진하고 위생용품(마스크, 앞치마, 두건)을 배부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음식문화 개선 컨설팅을 통해接客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먹거리 경쟁력 강화로 별교 태백산맥 꼬막거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면서 “꼬막의 고장 별교에서 제철 꼬막의 풍미를 즐겨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철순기자



광양시, 다압 신원회전교차로 정비 완료

‘다압 신원회전교차로’ 대형 소나무 웅장한 자태 뽐내

광양시는 하동군과 광양시를 연결하는 영·호남 관문인 신원회전교차로 조경특화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신원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원회전교차로 기존 소나무는 단일목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사방으로 가지가 뻗치지 않고 보양식재가 필요해 다압면사무소 일원 정담센터 화단으로 이식 완료했다.

반입목으로는 시 소유의 소나무를 이식해 공사 예산 절감 효과를 높였고, 수목의 원활한

활착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경 전문가와 장비 선택에 신중을 기해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소나무는 광양을 덕례리 녹지에서 굴취해 이식했다. 근원직경이 60cm에 달하고 수간이 통직하고 웅장하며 붉은 수피를 띠는 일명 적송(赤松)으로 불린다.

김재복 녹지과장은 “도시외곽 산림과 기존 녹색인프라를 연결해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